# 지역민 4명중 3명 "올해도 집값 오를 것"

## 사랑방 부동산, 시·도민 701명 설문조사
### 46.2% "소폭 상승"·29.7% "작년만큼 급등"

광주시민 4명 중 3명은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전남 부동산 플랫폼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역민 701명을 대상으로 '2022년 광주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5.9%가 '상승'을 전망했다.

상승 전망 응답자 중 46.2%는 2021년보다는 적지만 상승을, 29.7%는 2021년만큼 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하락'이라는 답변은 13.1%였고 '보합'이라는 응답은 11%였다.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광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사랑방 측은 분석했다.

올해 주택가격 전망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상승 비율이 높았다. 특히 20~30대에서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81%), 남구(78.8%) 주민들의 상승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물가상승률만큼 집값도 상승'이 55.8%를 차지했다.

이어 신규 분양가의 상승(22.6%), 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20.3%), 기타(1.3%) 순이었다.

반면 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들은 가격급등으로 거래감소, 호가조정(3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출규제 강화(29%), 기준금리 인상(20.1%), 투자수요 감소(15.4%) 등으로 금융 분야 규제 관련 답변이 절반가량 차지했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광주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해 상승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출 규제강화 등은 상승 둔화를 예측한 이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지난달 매매·전월세 상승폭 축소

###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매매, 전세, 월세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로 전월(0.6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수도권(0.76%→0.33%) 및 서울(0.55%→0.26%), 지방(0.51%→0.25%)에서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경기는 중저가 위주로, 인천은 개발사업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추가 금리 인상우려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 위축세가 지속되며 수도권 전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광주(0.52%)는 주거환경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울산(0.27%)은 정주여건 양호한 중저가 위주로, 부산(0.25%)은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대구(-0.10%)는 매물적체가 지속되며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5%로 전월(0.4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0.24%)은 학군 및 역세권 등 우수한 주요 단지나 중저가·중소형 위주로, 경기(0.24%)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인천(0.33%)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갱신계약 사용 및 대출규제 등으로 대체로 매물이 누적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22%로 전월(0.2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연수 기자

**르꼬끄스포츠 새단장**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르꼬끄스포츠 매장이 최근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오픈,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현대차,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4,402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 약 74억 원을 구매해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설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결연시설 및 소외이웃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위아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6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약 74억 원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설에도 약 1만 4,800여 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현대자동차그룹 16개 계열사 임직원들은 17일부터 28일까지 결연시설과 소외이웃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기부금, 설맞이 선물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 갤럭시S22 내달 초 공개

### S펜 내장 노트 시리즈 통합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가 다음 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시리즈 최초로 S펜을 내장한 모델로,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사실상 통합한다.

16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둘째 주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고 갤럭시S22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초대장이 발송될 예정으로, 행사일은 다음 달 9일이 유력하다.

그동안 외신 보도와 유출된 정보 등을 종합하면 이번 갤럭시S 시리즈는 갤럭시S22, 갤럭시S22플러스, 갤럭시S22울트라 등 3가지로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모두 전작보다 강화된 사진과 동영상 기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면 카메라와 전체적인 디자인을 차별화한 갤럭시S22울트라는 지난해 출시를 건너뛴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S펜은 갤럭시노트20에 비해 반응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등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S22와 갤럭시S22플러스는 화면 크기가 6.1~6.6인치로 전작(6.2~6.7인치)보다 다소 작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갤럭시S22 가격은 지난해 갤럭시S21이 시리즈 5G 모델 최초로 100만원 아래(99만9,900원)에서 시작한 것과 달리 100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 경제 프리즘

### 전남신보, 도란도란보증 시행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 어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란도란(島欄島欄)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금융회사 및 지역별 관공서와 함께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상담을 지원한다. 고객은 전남신보와 금융회사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보증·대출 상담 및 서류접수 등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편리하게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지역 소상공인의 보증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간 보증이용률 격차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신보는 현장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도 제공해 쉽고 빠르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신보 정양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서지역 등 보증 소외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스벅, 개인컵 이용 400원 할인

스타벅스 코리아는 개인 컵 사용시 4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컵을 사용하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가격 할인 혜택 대신 에코별 적립을 선택할 경우에는 더블 에코 보너스 스타 이벤트를 통해 2월 2일까지 제조 음료당 2개의 에코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

개인 컵 이용 관련 이벤트 외에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럭키 뉴이어 보너스 스타 이벤트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이벤트 기간 내에 제조 음료 주문시 개인 컵 이용과 상관없이 음료 1잔 당 별 1개가 추가 증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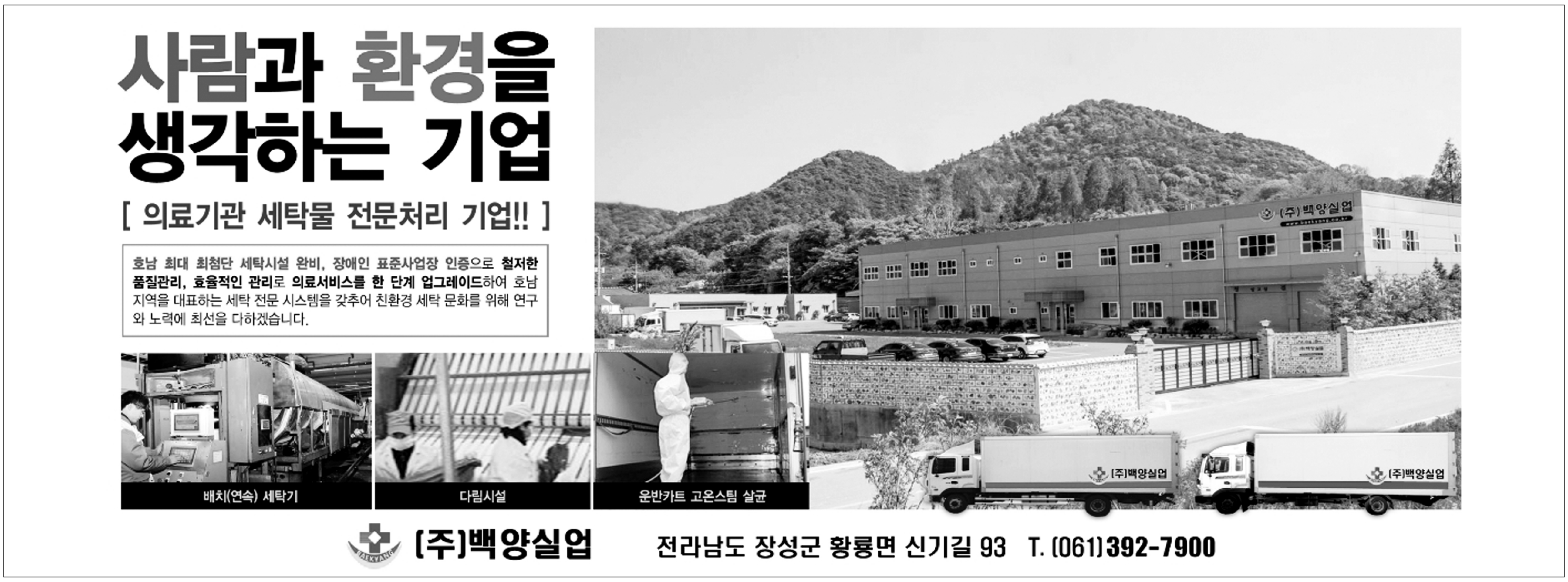
스타벅스는 현재 개인컵 사용 관련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

개인컵 이용 건수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데이터 기준8,621만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최대 약 342억 원에 이른다. /황애란 기자

### 산인공, 기능경기 참가자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4월 예정된 지역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 '광주시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를 17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기능경기대회에서는 금형,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등 총 53개 직종을 개최한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광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소속 학교, 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면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소정의 상금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이 면제되며, 오는 8월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